

똑! 똑!

2009년 7월 20일(월) 16

체험 칭찬 글로벌교육... “등꽃길이 즐거워요”

이채웅 강화여자중학교장 인터뷰

대화를 통한 화합

강화여자중학교 이채웅 교장은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한다. 학교의 업무 추진이나 학생들의 학업진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교장은 강화여중과는 인연이 많다. 강화여중에서 교감을 거친 후 교장초빙 공모를 통해 강화여중 교장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채웅 강화여자중학교 교장

강화군의 지역적 특색이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 있어 강화군민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강화군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학업 우수자들도 많이 배출됐죠. 하지만 현재의 강화군은 높은 이혼율로 야기된 결손가정 증가, 20%에 육박하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큼니다. 강화여중이 고민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에 힘을 쏟게 되었고, 이제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지속성, 연계성 등이 필요한 데 강화여중은 개인에 맞는 지속적 학습과, 학업 수업과 연계한 체계적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습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이 곳은 오지나 다름없습니다. 교통문제 등으로 강사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여중은 관사와 사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들고 있죠.

교통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학습이 끝나면 밤 11시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 강화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4회를 운행하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은 귀가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여중이 추구하는 방과후 학습의 특징이 있을까요?

→ 명품강사를 통한 명품수업을 추구하는 것이 강화여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준별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들의 경우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저와 미팅을 갖고 수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강사는 어떤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교사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 교사들에게는 교육정책이 변하고 혼란이 오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긍심과 사명감이 없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역시 뭐가 부족하게 되죠.

열정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을 늘 주문합니다. 특히, 교원들과 생각을 공유할 때는 '나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입장이 아닌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력향상 계획'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사가 참여를 할까 우려했는데 70%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토론회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 한 학기가 끝나고 부장급 교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죠. 단순히 단합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토론회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1박 2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현장에 모이면서부터 토론회가 진행되고, 토론회는 다음날까지 지속적으로 열립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목표를 갖고 끈기있는 학생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강화여자중학교 학교탐방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가진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 자체가 도시 중심으로 몰리면서 같은 수도권이라도 강화군은 교육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우수 인재를 수시로 배출하던 강화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된 것.

이런 강화군 교육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강화군 내의 각 학교는 재도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교육적 변화의 움직임은 몇몇 학교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학교 중 선도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화여자중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강화여중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공립중학교로 지난 1954년 7월 7일 설립인가를 받고 1955년 3월 25일 개교했다.

1979년 9월 1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고, 1992년 3월 1일 강서중학교 양사분교를 통합해 현재까지 강화군 내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화여중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응력 또한 높이고 있다.

명품 방과후 학교에서 자라는 명품 학생들

강화여중은 695명(18학급)의 학생 중 학비감면대상자가 전체 10%를 넘고 중식지원자가 15%에 달하는 등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농어촌 학교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교육 수강 기회가 도시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각종 교육기회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 교육 이외에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강화여중은 이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우수 교사(본교 및 인근지역 교사, 외부 강사 등)를 활용,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귀가할 교통수단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명품 방과후 학교에서는 7교시에 교과중심 프로그램, 8교시에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명품 심화반은 9, 10, 11교시에 검증된 방과후 전담교사에게서 영어, 수학, 논술 등을 배우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명품 종합반은 9교시 수업을 듣고 희망자에 한해 10시까지 자율 학습을 한다.

변변한 공부방도 없는 형편인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부터 밤 10시까지 면학실을 개방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일 선생님들과 방과후 전담교사들이 돌아가며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칭찬을 먹고 커요”...칭찬 선도 학교

칭찬교육 선도학교인 강화여중에서는 학생들에게 '칭찬'이 보약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한다.



◆ 칭찬일기 발표회 모습.



◆ 학교 도서관 모습.



◆ 없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힐센터'



◆ 강화여자중학교 전경

적극적이고 올바른 생활태도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함양하기 위하여 '칭찬 카드'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 모든 교사가 학교교육활동 중에 칭찬 카드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나' 책자의 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명품 종합반은 9교시 수업을 듣고 희망자에 한해 10시까지 자율 학습을 한다.

또 뮤지컬반, 재즈댄스반, 실용음악반, 코스프레, 관현악반 등의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 축제 때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별자리반, 은수신문반 등의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화된 방과후 수업 통해 명품 학생 육성에 학생에게 맞춘 체험학습, 교육효과 극대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교실에서 배운 것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응용하다 보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강화여중 학생회장인 성주현(15)은 천체관측 등의 과학 체험을 비롯해 영어 전용교실에서의 영화관람, 각종 수련활동 및 청소년단체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져 듣고하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강화여중에서는 봄, 가을에 실시되는 현장학습 때 핏팅, 브로드

웨이인 드림즈, 시키고, 미라클, 난타 등 대도시 학교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단체로 관람했다.

계다가 올해 초(2009. 3. 6)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명훈과 함께하는 음악이야기를 관람시켰다.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강화여중은 1979년 강화여고와 분리된 후, 운동장 없는 학교의 실용을 겪어왔다.

체육대회나 축제 등의 행사를 하려 해도 강화여고의 운동장을 빌려서 하느라 일정 잡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체육 수업은 주차장 한쪽에서 웅성하게 이루어졌다.

이외 공간이 없어 국어시간에 문학 창작 수업을 하거나 미술 시간에 풍경화 그리기를 하기도 어렵던 학교에 드디어 전교생이 용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는 야외학습장이 마련되었다.

이외 무대를 설치하고 한쪽으로 사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그마한 폭포도 만들었다.

삼삼오오 몰려 앉아 재잘거릴 수 있는 예쁜 나무 의자도 군데군데 놓았고 폭포 옆으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원두막도 지었다.

야외학습장의 이름은 전교생에게 공모하여 '꿈과 지혜가 영그는 힐센터'로 정했다.

최신 시설 설치 통한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

성의있게 꾸준히 영어책 읽기를 한 학생에게는 검증을 통해 상장을 주도록 하고 영어독서 실적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며 정기교사에 도록 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다.

강화여중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강화군을 넘어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상호간의 공감대로 형성돼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학생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와 그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기에 강화여중은 긍정적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 동아리 활동 모습.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